

제18회 국제주얼리디자인공모전 시상식 개최

- ‘올해의 베스트굿즈상’ 얼랏제이(A LOT J) 전유림 수상 -



(사)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회장 서애란)와 서울주얼리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한 제18회 국제주얼리디자인공모전 ‘2018 18th International Jewelry Design Contest’의 시상식이 지난 12월 28일 용산공예관에서 개최됐다.

18회 국제주얼리디자인공모전 주제는 ‘나, 주얼리, 나의 삶을 채우다.(I, Jewelry, Fulfilling my Life.)’로 국내 720점(실물 281점, 렌더링 199점, 카드 200점, 신제품 40점), 해외 110점(미국, 영국, 중국, 일본, 대만 등 28개국) 총 830

점이 접수되어 역대 최다 접수를 기록했다. 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은 (사)한국디자인지식산업포럼 양준경 회장은 “실물부문은 예년에 비해 작품수준이 매우 향상됐고 창의적이며 다양한 재료와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들이 다수 출품됐다. 렌더링부문은 표현력이 뛰어나고 제작 가능성이 높은 디자인이 다수 출품되며 카드부문은 제품의 기본원리와 구조를 이해한 완성도 높은 디자인이 출품됐다.”고 심사평을 했다.

영예의 대상은 실물부문에 이원기 작 ‘노부와 아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카드부문에 이예림 작 ‘전도유망(前途有望)’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렌더링 부문에 김혜린 작 ‘두빛나래’ (서울특별시시장상)가 선정됐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서는 주얼리 도매점 및 개인 브랜드 등 주얼리 업계의 중심인 사업자를 위한 ‘올해의 베스트굿즈상’이 신설됐다. 제품의 이미지 관리 및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마케팅 효과를 도모하고자 새롭게 개설된 부문이다. 2018 베스트굿즈상에는 얼랏제이(A LOT J) 전유림 대표의 ‘하모니아’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상)가 선정됐다. ‘올해의 베스트굿즈상’ 수상작품은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으로 제작된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제19회 국제주얼리디자인공모전’의 주제와 일정이 공개됐다. 올해 공모전 주제는 ‘My Story’, 주얼리를 디자인하면서 전하고 싶은 자신만의 스토리를 작품에 담아내는 것이다.

제19회 공모전 접수 일정은 서울, 경기, 대전, 강원, 광주 접수는 2019년 11월 13일이며 각 지회별(대구, 전북, 부산) 접수는 11월 8일부터 11일까지이다. 심사는 11월 14일 진행되며 15일 작품 반출이 진행된다. 결과발표는 12월 2일 예정이다.

/ 강민경 기자

2019년 신상 시제품 마켓 ‘내추럴 브릴리언스’ 개최

- SJC 선정 디자이너들과 스와로브스키 천연유색보석이 참여 -



서울주얼리지원센터(이하 SJC)가 스와로브스키 쥘스톤과 함께 ‘내추럴 브릴리언스(NATURAL BRILLANCE)’라는 주제로 2019년 신상 시제품 마켓을 개최했다.

본 전시는 2019년 1월 18일까지 SJC 2관(종로구 서순라길 83) 1층 전시실에서 개최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시 기간 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토, 일 휴관)

‘내추럴 브릴리언스’ 마켓은 SJC 제1관의 2018 시제품제작지원의 후속 지원에서 선정된 주얼리 디자이너 브랜드의 2019년 신상 시제품에 스와로브스키의 천연유색보석을 무료지원하고 스페이스42에서 판매 및 유통을 맡은 콜라보레이션 마켓이다.

SJC 1관 지원사업 중 하나인 2018주얼리시제품제작지원 사업은 주얼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브랜딩을 위한 우수 주얼리 디자인 권리 보호 지원으로 디자이너 역량강화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서울시 소재 자체 디자인이 가능한 디자이너 및 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 40개의 주얼리 디자이너 및 소상공인 업체를 선발하여 1차로 시제품 제작 비용을 지원했으며 2차 후속지원을 통해 제작된 시제품의 홍보물품 및 디자인권·상표권 출원 비용을 지원했다.

‘내추럴 브릴리언스’ 마켓에는 A.QRATE, Aureola, DIDIBOYU, Hee Young Kim Jewellery, islet, KIMISOO, nvericon, Oreum Art Gem Design Institute, 그날의 분

위기, 일그램묵주반지 by 주얼 카페, 엔도디자인스튜디오로 총 11개 브랜드가 참여했다.

서울시에서는 2015년부터 SJC 1관을 개관하여 신진디자이너 발굴과 주얼리 소상공인의 브랜딩 및 판로개척, 감정지원, 라이브러리 운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 6월 개관한 SJC 2관은 ‘스페이스 42’라는 서울시 공동브랜드로 신진디자이너 인큐베이팅 및 홍보, 온·오프라인의 판매채널 등의 다양화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 문의: SJC 1관 02-764-9051, 2관 1670-1420

“귀금속 구인 / 구직 / 벼룩시장”

[www.DIAMONDS.co.kr]